

[동정] 관세청장, 대미 식품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

- 케이(K)-푸드 대미 수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... 한-미 자유 무역협정(FTA) 활용 당부

- 이명구 관세청장은 8월 7일(목) 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(주)한우물*을 방문하여 냉동 식품류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, 식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.

* 농업회사법인(주)한우물(대표 최정운) : 2006년 설립, 식품제조가공업, 2024년 수출 2천6백만불

- 간담회에서 최정운 (주)한우물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,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- 이 청장은 “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가공식품류는 한-미 자유무역협정(FTA)의 효과*가 크다”며, “우리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* (예시) 냉동김밥 대미 수출시 관세율

대상	기간	①상호관세 부과전 세율		상호 관세율 (②)	수출기업 최종관세율 (①+②)
		기본 세율	한-미 FTA 협정세율		
냉동김밥	~8.6.	14%	0%	10%	- 한-미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 시 10% - 한-미 자유무역협정(FTA) 미활용 시 24%
	8.7. 이후	14%	0%	15%	- 한-미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 시 15% - 한-미 자유무역협정(FTA) 미활용 시 29%

-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,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·제공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임주연 (042-481-32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미 (042-481-3211)